

# 누리호 2차 발사 내일로…“시간 계획은 그대로”

## 강풍에 따른 발사대 기술진의 안전 우려로 아예 하루 미뤄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일이 기상 악화로 16일로 하루 미뤄졌다. 날짜는 하루씩 순연되지만 기준 시간 계획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4일 오전 6시 비행시험위원회, 오전 7시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과기부와 항우연은 “오늘 나로우주센터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향후 더 세질 가능성이 있어서 발사대 기술진의 완전한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누리호의 이송과 발사는 당초 계획보다 하루씩 연기해 6월 15일 이송, 6월 16일 발사하

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과기부와 항우연은 전일 저녁에 비행시험위원회를 개최해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발사장으로 발사체를 이송한다고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풍속, 강수량 등 기상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보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어 이튿날인 이날 아침에도 기상이 우호적이지 않아 아예 하루 미루기로 합의했다. 고흥은 이날 정오에 풍속이 초속 7m, 강수량은 0~1mm로 예보됐다. 우려했던 비는 소강됐지만 작업이 이뤄지는 때 바람이 세다고 판단한 것이다.

발사장은 조립동보다 고지대인데

발사체를 무진동 이송차량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오면 노면이 젖어 이송 차량이 비탈길을 뜯을 라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또 발사체를 기립시킨 뒤 가스류 등을 공급하는 구조물인 엔빌리컬 타워를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조립해야 하는데 비와 강풍은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조정된 발사체 이송일과 발사일인 15일과 16일은 강수 확률이 30%로 비가 내릴 확률이 낮은 것으로 예보돼 있다. 또 작업이 진행되는 때 풍속은 최고 초속 4m로 안정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향후 누리호 발사 일정은 날짜만

하루 순연될 뿐 시간 계획은 모두 기준과 같다.

항우연의 계획에 따르면 발사체를 발사대로 이동해 설치하는 작업은 발사 하루 전날인 15일 1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날 오전 7시 20분 발사체를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1.8km 떨어진 발사장까지 무진동 이송 차량에 실어 오전 8시 30분까지 옮길 계획이다. 안전을 위해 사람 걸음걸이 속도의 3분의 1인 시속 1.5km로 주행한다.

발사체가 발사장에 도착하면 발사대에 세우고 고정하는 작업이 오전 11시부터 이뤄진다. 이어 오후 6시 20분까지 발사대 설치 작업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종배 기자

## 부동산특조법 8월 4일 종료 광주시 “기한내 등기 신청해야”

2020년부터 시행돼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부동산 실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 법은 1978년과 1993년,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적용지역은 1988년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이다.

이에 따라 현재 광산구 전역 79개동을 비롯해 서구 서창·세하·용두·봉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자석·압촌·화정·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동이 해당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관할 자치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자치구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하면 된다.



‘제1회 안전문화 시민공모전’ 시상식

광주시는 14일 시청 1층 행복나눔실에서 ‘제1회 안전문화 시민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 ‘김치소비량 감소’ 전남도, 국산김치 소비촉진 박차

### 오늘부터 캠페인·판촉 상담회·할인행사 등 추진

김치소비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국산김치 소비촉진 활성화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첫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를 추진한데 이어 국산김치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15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김치 식품명의 원재료 관리 부실에 따른 위생 문제 논란과 식생활 변화 등에 따른 김치 소비량

감소가 계속된 가운데 국산 김치의 효능을 소비자에게 각인 시켜 전남산 김치의 소비 촉진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연도별 1인당 하루 김치소비량은 2010년 108.1g에서 2017년 96.3g, 2018년 89.2g, 2019년 86.4g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국산김치 소비촉진 대책은 15일부터 7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도와 시군, 농협, 외식업체회, 소비자단체 등 범도민이 함께 하는 ‘국산김치 소비 촉진 캠페인’ ▲남도장터 이용 쿠폰(5000원)을 지급하는 ‘국산김치 사용 지정업소 이용 인증 이벤트’ ▲100% 국산원료 전남김치 할인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목표를 지난해보다 1680개가 늘어난 6700개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에 고춧가루, 천일염 등 식재료 구입비를 업체당 25만 원을 연계 지원한다.

/박종배 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84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 광주 마을기업 2곳 행안부 우수마을 선정

㈜한누리꽃담·행복한쓰임협동조합 등

광주지역 2개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2022년 우수마을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우수마을기업은 전국 마을기업 중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문제 해결 등에 성과를 낸 기업이 선정된다.

행안부는 현장실사, 서류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한누리꽃담(광주 서구)과 행복한쓰임 협동조합(광주 동구) 등 전국 16개 기업을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광주시 마을기업 중 8개 기업이 우수마을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누리꽃담은 결혼 이주여성 공동 육아를 위한 마을공동체에서 시작해 현재는 화훼 공예품 제작, 화

훼도매, 다문화음식점을 운영하며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 음식점 일부 공간을 마을공방 및 교육장으로 활용해 지역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번역과 원예 재능기부를 통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행복한쓰임 협동조합은 잉여원단, 베레지는 옷을 다시 디자인해 기념품이나 액자, 가방 등의 패브릭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기업이다.

특히,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광주광역자활센터 취약 계층 일자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봉제 기술 교육 후 제품을 납품 받는 컨소시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김용범 기자

## 시·관광재단·광주신세계, 관광 홍보 ‘맞손’

### ‘6월, 여행하기 좋은 달’ 광주 관광 홍보관 운영

광주시가 광주관광재단, 광주신세계와 광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3개 기관은 지난 13일부터 26일 까지 2주간 광주신세계 1층에서 ‘광주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며 광주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이번 홍보관은 ▲스마트한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VR 관광체험존 ▲관광콘텐츠 공모전 수상작과 미디어아트 창의밸트 영상으로 채운 관광영존 ▲광주의 주요 관광지를 사진으로 전시한 관광정보존 ▲인생네컷 즉석사진 존 ▲광주문화 관광 캐릭터 ‘오매나’ 포토존 등으로 꾸며졌다.

관광정보존은 ‘천천히, 감명깊게’

## 광주 시민권익위, 현장 중심 소통 강화

### 빛고을건강타운 이용자 대상 ‘찾아가는 시민권익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14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제1회 찾아가는 시민권익위원회를 열고, 시민 불편과 고충 사항을 파악했다.

이날 위원회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자 시민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고충사항과 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안전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비롯, 자원봉사자 실비 현실화, 교차로 자동차 신호등 녹색 등 점멸시간 표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타운 이용 제한 해제 요청 등 모두 30여 건의 사항이 모아졌다.

/김용범 기자



내삶이 행복한 광산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30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